아동기의 학대 경험이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정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김표민, 최원석
인천재능대학교

생명연구 제67집 2023년 2월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 67, Feb 2023, pp. 145~168
https://doi.org/10.17924/solc.2023.67.145

아동기의 학대 경험이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정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김표민*
인천재능대학교 복지케어과 조교수

최원석**
인천재능대학교 복지케어과 조교수

주제분류 사회과학, 사회복지실천

주제어 아동기의 학대 경험, 청소년기의 자살행동, 부정 정서, 자아존중감

요약문 본 연구는 아동기의 피학대 경험이 청소년기의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 정서의 매개효과와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발달단계에 맞추어 초·중·고등학생 시기를 비교·분석하였다. 기존 연구가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의 발달을 개별적으로 검증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의 발달단계별 비교를 통해, 청소년기 자살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0차(2015), 13차(2018), 16차(2021) 아동부가조사 자료로, 10차 때 초등학생, 13차 때 중학생, 16차 때 고등학생으로서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총 1,138명(초등학생 10차: 438명, 중학생 13차: 383명, 고등학생 16차: 317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모형 분석은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기 학대 경험과 청소년기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부정 정서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시기 모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기 학대 경험, 부정 정서, 청소년기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시기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지만, 중학생 시기에서는 자아존중감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논의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자살행동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저자
** 교신저자

Ⅰ. 서론

2022년 자살 문제에 있어 지속해서 화두에 오르는 것은 청소년기 자살이다(서희웅, 2020). 자살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자살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구본용 · 백승아, 2019; 신지수, 2020). 통계청(2021)이 발표한 「2020년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2018년 청소년 사망자 2,017명 중 자살로 사망한 청소년이 827명으로 41%에 해당하고, 20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는 청소년 인구에 비해 자살률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통계청, 2021), 청소년자살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자살률을 학년별로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학년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지만(고3: 2.1%, 고2: 2.4%, 고1: 2.6%), 중학생의 경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났다(중1: 3.3%, 중2: 3.6%, 중3: 3.9%)(보건복지부, 2021). 최근 선행연구에서 자살행동을 높이는 요인을 살펴보면, 고통 감내력 부족(송지숙 · 구본용, 2020; 송지숙, 2020), 낮은 자아존중감(김성희 · 김희숙, 2012; 이선희 · 전종설, 2012; 최원석 외, 2020), 분노(김종은 · 이윤주, 2013; Deffenbacher et al., 2000), 비합리적 신념(구본용 · 백승아, 2019; 서수균 · 권석만, 2005), 무망감(심미영 · 김교헌, 2013), 우울(강희양 · 양경화, 2013; 심미영 · 김교헌, 2013; 오혜진 · 최희철, 2018; 최원석 외 2020; Lavoie et al., 2001), 유년기 무효화 환경(송지숙 · 구본용, 2020; 송지숙, 2020), 피학대 경험(김지영 · 이경희, 2015; 이성희 · 박경애, 2021) 등과 같은 부적응적인 정서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청소년기 자살행동은 다양한 원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 경험은 청소년기 자살행동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 아동기 학대 경험은 가족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부모를 비롯한 관계가 깊은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다. 그리하여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 원인을 본인의 잘못으로 생각하여 자기를 스스로 비난하면서, 자기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낮추게 되고,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짐이 된다는 왜곡된 지각을 발전시켜 나간다(이성희 · 박경애, 2021; 장현아, 2008). 이처럼 반복되는 힘든 상황을 벗어날 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순간적인 자살사고와 행동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강민철 외, 2013; Baumeister, 1990; Joiner et al., 2007). 특히, 청소년 시기는 취약한 인지 · 정서적 특성으로 인해 환경으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고 좌절하게 되어 급격히 부정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서(김좌겸 · 장석진, 2019) 자살사고로 이어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유재순 외, 2008). 즉, 아동기의 가족으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자기 비하의 왜곡된 인식체계를 형성하게 하여, 정체성 발달이 중요해진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위축, 불안, 우울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공격성, 과잉 행동, 비행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포함하여 심리 ·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광혁, 2009; 정익중, 2008; Shonk and Cicchetti, 2001;

Mills, 2004; Stirling et al., 2008). 또한 김은경과 이정숙(2009)이 초등학교 4~6학년 7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아동학대 경험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대의 영향은 아동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동학대가 부정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횡단 연구이거나 회고적 연구로서 아동학대의 결과로 인한 심리 · 사회적 적응 문제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의 일부 연구자들은 아동학대가 심리 ·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연구에 점차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Cicchetti and Rogosch, 1997; Lynch and Cicchetti, 1998; Johnson et al, 2002; Herrenkohl and Herrenkohl, 2007). Johnson 등의 연구(2002)에서는 167명의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요인, 아동요인, 가족의 경제상태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6살 때 아동의 학대 경험이 8살 때 아동의 분노,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공격성 등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학대 경험이 아동의 부정 정서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보다 더 많은 심리 · 사회적 적응 문제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의 횡단 연구나 회고적 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종단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와 심리 · 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에 관해 기존 선행연구와는 다소 다른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Ethier et al(2004)은 일시적으로 방임을 경험한 아동과 지속적인 방임을 경험한 아동을 비교한 결과, 지속적인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일시적으로 방임을 경험한 아동보다 높은 수준의 심리 · 사회적 적응 문제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Thornberry et al(2001)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 때 학대를 경험한 집단과 지속적인 학대를 경험한 집단 그리고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한 결과, 아동기만 학대를 경험한 집단보다 청소년기만 학대를 경험한 집단과 지속적인 학대를 경험한 집단이 청소년기 동안 불안을 통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횡단 연구의 한계인 주요 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점과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기의 학대 경험, 부정 정서, 자아존중감,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을 발달단계별로 비교하여 청소년기의 개인 내 또는 개인 간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주체로 진행된 한국복지패널의 2015년 10차(초등학교), 2018년 13차(중학교), 2021년 16차(고등학교) 종단 자료를 사용하여 아동기의 학대 경험이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요인인 부정 정서를 매개변인으로 상정하고, 개인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을 조절변인으로 상정하여 어떻게 매개 혹은 조절하는지 발달단계별 영향을 살펴봄으로 청소년기 자살행동의 발달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고,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을 효과적으로 감소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아동기의 학대 경험, 부정 정서, 자아존중감이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고자 진행되었고,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의 자살행동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부정 정서와 자살행동

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보다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비록 아동기에 학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발달단계별로 적절한 개입방안과 예방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기 이후에까지 미칠 수 있는 부적응적 영향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문헌고찰

1. 아동기의 학대 경험과 부정 정서, 자아존중감이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최근 자살행동과 학대 경험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가 청소년기의 자살행동과 높은 관련이 있고(오승환 · 이창한, 2010),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된 청소년이 자살시도 및 자기 파괴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성, 2009; 박재연, 2010; 최윤정, 2012). 또한,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공격성, 무기력, 위축, 우울 ·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 경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확인되었다(김보영, 2008; 김재엽 · 최지현, 2005; 김재철 외, 2012; 문동규 · 김영희, 2011; 이성희 · 박경애, 2021; 정익중, 2008; 최은영 · 안현의, 2011; Baldry and Winkel, 2003; Marshall et al., 2013; Uebelacker et al., 2013). 일부 연구에서는 아동기 지속적 학대 경험이 외상적 스트레스가 되어 생애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자살행동의 중대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박병금 · 노필순, 2007; 오승환 · 이창한, 2010; Aififi et al., 2008; Joiner et al., 2007). 즉 학대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학대 경험이 있는 집단이 생애 전반에 걸친 자살행동 비율 및 자살시도 비율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이성희 · 박경애, 2021; 홍나미, 2011; Berenson et al., 2001; Brezo et al., 2008). 이처럼 부모를 비롯한 양육자로부터 경험한 학대 경험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하거나, 개인의 심리 · 정서 · 사회적 발달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a Silva Ferreira et al., 2014; Lee and Hoaken, 2007).

한편, 아동기 학대 경험은 학대 자체가 청소년기의 자살사고나 자살행동을 직접적으로 높이기도 하지만 학대 경험으로 내재화된 부정 정서가 자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황은수 · 성영혜, 2006; 홍나미, 2011; 홍명숙, 2017). 한번 발생한 부정 정서는 지속성과 증상의 증가를 가져올 위험이 크고(Harrington et al., 1990), 부모로부터 아동기 학대 경험을 한 청소년이 학대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부정 정서 등의 내재화된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데(강현아 외, 2012; 김재철 외, 2012; 박병금 · 노필순, 2007; Johnson et al., 2002; Vranceanu et al., 2007), 이렇게 내재화된 부정 정서는 학대 경험을 지닌 청소년들의 자살행동을 높이는 강력한 매개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갑숙 · 전영숙, 2009; 김미예 · 김정미, 2013; 김보영, 2008;

문동규 · 김영희, 2011; 신복기 · 이성진, 2012; Uebelacker et al., 2013). 부정 정서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도 학대 경험을 한 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높은 공격성과 부정 정서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고(Shields et al., 1994),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 청소년은 대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신뢰하거나 친밀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Hammen and Brennan, 2004; Varga and Krueger, 2013).

청소년의 자살 및 자살행동의 보호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관계, 낙천적 성격, 삶의 만족, 자아존중감, 친구 관계 등과 같은 요인들이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 왔으며, 특히 이들 변인 중 자아존중감(self-esteem)이 자살사고나 자살행동을 낮추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왔다(박재연, 2009; 박재연 2010; 이선희 · 전종설, 2012; 홍영수 · 전선영, 2005; Besser and Neria, 2009; Dervic et al., 2004; Johnson et al., 2011; Schimel et al., 2008). 또한 자아존중감은 부정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다. 자아존중감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개념을 형성하게 되므로(Rosenberg, 1979), 학대 경험은 부모로부터 받는 부정적 개념이 되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한다(김나예, 2012; 박경진, 2005; 안형숙, 2014; 윤혜미, 1997; 정익중, 2007; 조미숙, 2003; Kernis, 2002).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학대당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다고 보았다(Browne and Finkelhor, 1986).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무능감 및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된다(Crittenden and Ainsworth, 1989). 그 결과 부정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그 긴장의 해소를 위해 자신이 학습한 대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재연 외, 2000). 즉, 신체학대를 경험하거나 부모로부터 방임을 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 부정 정서, 긴장을 고조시켜 부모로부터 학습한 대로 공격적 행동이 발현되는 것이다(김양희, 1995; 안형숙, 2014; 이채남, 2006). 또 다른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부정 정서가 높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심리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정서적 고통을 스스로 보호하기 쉽다고 하였다(심희옥, 1998).

또한,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극단적인 행동을 시도하기보다 적응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김보영 · 이정숙, 2009; 정지은 · 김민태, 2012). 자아존중감은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하는 가치평가로, 자아존중감이 있으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을 올바로 파악하면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쉬워진다(홍세희 외, 2016).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영향이 가장 높은 편이지만, 성장하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곽금주, 2008).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부정정서를 감소시켜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부적응 문제를 극복하게 하여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해 자살행동을 완충시킬 수 있다(홍나미 · 정영순, 2012).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학대 경험으로 인해 내재화된 부정 정서가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동기 학대 경험과 청소년기의 자

살행동 사이에 부정 정서가 매개 역할을 하는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즉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라도 자아존중감에 따라 내재화된 부정 정서가 영향을 받아 자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부정 정서는 이미 내재화되었으나 자아존중감이 향상됨으로써 부정 정서가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아동기 학대 경험으로 인한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내재화된 부정 정서를 낮추어 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내재화된 부정 정서 수준을 완화하려는 노력과 상관없이 자아존중감과 같은 청소년기의 긍정적 심리적 자원을 증가시키는 개입 노력만으로도 자살행동의 예방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으므로 자살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부정 정서와 자아존중감의 발달단계별 차이

청소년기의 부정 정서는 표면적으로 그 증상이 드러나기보다 공격적 행동, 규칙 위반, 비이성적 행동의 형태로 표출되는 경향이 강하다(김성희, 2018; 김영한 외, 2013). 이런 부정 정서는 우울 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의 무기력과 의욕 저하로 학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Dumas and Nilsen, 2003). 청소년기의 우울은 일명 '가면성 우울(Masked Depression)'이라고 하여 성인 우울과 달리 반항이나 짜증, 분노 폭발 등을 자주 호소해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배주미, 2000). 종합해 볼 때, 부정적 생활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분노가 외현적으로 발현되지 못하고 내현적으로 억제되면서, 그리고 반복적인 실패로 무기력감이 학습되면서 우울이 발현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기 비난과 같은 부정적 사고를 통해 우울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우울의 발달적 특성은 아동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이 높은 우울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다. 아동학대는 청소년의 분노감과 무기력감을 촉발하는 부정적 생활사건이며, 그러한 부정적 경험이 많아질수록 부정 정서가 높아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주로 반영 이론으로 설명되는 데 Cooley(1902)는 타인의 반응에 반영된 자신의 행위를 봄으로써 자신에 대해 알게 된다는 '면경 자아(The looking glass self)'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자아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강조하였다. Mead(1934)는 이러한 개념을 더욱 확장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으로 발전시켰는데 그는 부모나 교사, 동료 등 중요한 타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자아존중감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평가한다고 지각하면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반대로 열등하게 평가한다고 지각하면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이후에 Rosenberg(1979)가 '반영적 평가(reflected appraisal)'라고 표현한 이 이론은 자아 형성 원리 및 그 실체에 관한 주요 이론으로 인정받아 왔다. 자아존중감의 형성 과정을 설명한 Mussen 외(1984)에 따르면 아동은 먼저 자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자기개념의 단면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며, 이러한

평가들이 모여서 자아존중감이 형성된다. 반영 이론에서 설명했듯 아동이 자기개념을 형성, 평가하는 과정은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의식의 대두와 함께 취학 전에 그 바탕이 형성되며 9, 10세경에 뚜렷해진다. 그리고 12세까지 안정된 양상을 보여 일생을 통해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된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한 특성으로 개인의 성격 발달, 환경적응, 긍정적 자아실현의 중요 요인으로 사회적, 심리적 적응을 나타내는 변인이다(김창곤, 2006). 청소년의 발달단계 상 중학생 시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며 자신에 대하여 끊임없는 의문과 회의를 제기하는 자아의식 발달의 시기를 경험한다.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은 발달단계의 갈등과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 먼저 부모로부터 심한 꾸중이나 심리적 거절, 외모에 대한 고민, 이성 친구와의 헤어짐, 성적 저하, 왕따, 입시 실패 등의 분명한 동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신민섭 외, 1991).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주로 우울, 분노, 소외감 등 개인의 정서 관련 요인과 자아존중감, 자아통제력과 같은 개인의 성격적 요인, 가족의 정서적 유대, 양육태도, 가족관계 등 가정 환경적 요인, 사회적지지 및 결여 등 사회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요인, 성별,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등이 있다(김미예 · 김정미, 2013; 김지수, 2011; 최연희 · 장정남, 2014). 아동기 학대 경험은 청소년의 정서적 건강과 안녕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모든 학대 경험의 청소년이 자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이 과정을 이어주거나 억제하는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자살행동에 대한 대표적인 위험요인이자 보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손상된 자아존중감은 자살행동과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기도 하며(Evans et al., 2004), 자아존중감은 사춘기의 자살과 관련한 강력한 내부 보호 요인이 되기도 한다(Eskin et al., 2007; Groholt et al., 2005). 또한 오승환(2009)은 중 · 고등학생 모두에게서 자아존중감은 자살사고의 완화를 도와주는 보호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남 · 녀 청소년 모두 자아존중감이 자살사고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선희 · 전종설, 2012). 문동규와 김영희(2012)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사회적지지에 이어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대한 억제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아동기 학대 경험과 부정 정서, 자아존중감이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발달단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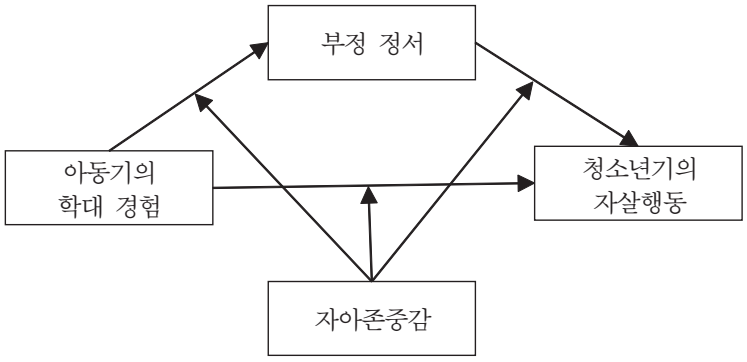
연구 대상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복지패널 2번째 웨이브의 아동인 10차(2015), 13차(2018), 16차(2021) 아동 부가조사의 자료로, 10차 때 초등학생이었고, 13차 때 중학생, 16차 때 고등학생으로서 부가조사에 대해 응답 완료한 자료는 재학 중인 아동 또는 재학 중이지 않더라도 그 시기에 해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총 1,174명(초등학생 10차: 458명, 중학생 13차: 391명, 고등학생 16차: 325명)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기의 학대 경험과 부정 정서가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 문제 1.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기의 학대 경험과 청소년기의 자살행동 간에 부정 정서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연구 문제 2.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기의 학대 경험과 부정 정서, 청소년기의 자살행동 간에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1) 아동기의 학대 경험 척도

아동기의 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서울아동패널(2005)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신체적 학대 1문항, 정서적 학대 3문항, 방임 4문항으로 3개의 하위요인과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경험을 조사한 것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피학대 경험이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항들은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 5점)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시기는 .684, 중학생 시기는 .684, 고등학생 시기는 .643으로 나타났다.

2) 부정 정서 척도

부정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K-CBCL[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CBCL: Child Behavior Checklist)를 오경자 외(1998)가 번안한 척도 중 아동의 부정 정서(우울, 불안)에 해당되는 문항을 추출한 것이다. 이 척도는 부정 정서(우울, 불안) 단일요인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의 경험을 조사한 것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부정 정서(우울, 불안) 정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항들은 Likert 3점 척도(전혀 아니다: 1점, 자주 그렇다: 3점)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시기는 .855, 중학생 시기는 .850, 고등학생 시기는 .842로 나타났다.

3) 청소년기의 자살행동 척도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Reynolds(1988)의 SIQ(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에서 자살생각 2문항, 자살계획 2문항, 자살시도 2문항으로 3개 하위요인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조사 시점을 생애 동안의 경험을 조사한 것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평소에 자살에 대한 행동이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항들은 Likert 7점 척도(전혀 없다: 0점, 거의 매일: 6점)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시기는 .922, 중학생 시기는 .962, 고등학생 시기는 .932로 나타났다.

4)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g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한국어판 아동용 10문항과 Sherer et al(1982)이 제작하고 박현선(1998)이 재구성한 자기효능감 척도 중 3문항을 추가하여 구성된 것이다. 이 척도는 자아존중감 단일요인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항들은 Likert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

다: 4점)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시기는 .859, 중학생 시기는 .918, 고등학생 시기는 .914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IBM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22.0과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SPSS를 사용하여 연구 변인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발단단계(초등 · 중등 · 고등)별로 Cronbach's α의 내적합치도 계수를 측정하였다. 둘째, 발단단계(초등 · 중등 · 고등)별로 연구 변인의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셋째, 발단단계(초등 · 중등 · 고등)에 따른 연구모형의 매개효과와 매개된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모형검증을 진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초 통계 및 상관분석

1)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

연구 대상의 발달단계(초등 · 중등 · 고등)별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시기 연구 대상의 성별은 남자 209명(47.7%), 여자 229명(52..3%)이고, 학년은 초등학교 4학년 137명(31.3%), 초등학교 5학년 149명(34.0%), 초등학교 6학년 152명(34.7%)으로 나타났고, 중학생 시기 연구 대상의 성별은 남자 186명(48.6%), 여자 197명(51.4%)이고, 학년은 중학교 1학년 114명(29.8%), 중학교 2학년 137명(35.8%), 중학교 3학년 132명(34.5%)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 시기 연구 대상의 성별은 남자 150명(47.3%), 여자 167명(52.7%)이고,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96명(30.3%), 고등학교 2학년 113명(35.6%), 고등학교 3학년 108명(34.1%)으로 나타났다. 발달단계(초등 · 중등 · 고등)별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기술통계분석 결과

		초등학생(N=458)		중학생(N=391)		고등학생(N=325)	
		M	SD	M	SD	M	SD
아동기의 학대 경험	신체적학대	1.28	0.69	1.14	0.41	1.08	0.34
	정서적학대	1.19	0.44	1.19	0.53	1.15	0.38

		초등학생(N=458)		중학생(N=391)		고등학생(N=325)	
		M	SD	M	SD	M	SD
	방임	1.05	0.19	1.04	0.24	1.03	0.15
부정 정서		1.25	0.29	1.26	0.29	1.24	0.27
청소년기의 자살행동	자살생각	0.28	0.67	0.35	0.68	0.27	0.65
	자살계획	0.22	0.57	0.27	0.61	0.21	0.53
	자살시도	0.23	0.57	0.28	0.64	0.23	0.55
자아존중감		3.21	0.44	3.17	0.50	3.07	0.49

2) 상관관계분석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기의 학대 경험, 부정 정서, 자아존중감,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초등학생 시기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대 경험은 부정 정서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지만, 자살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정서는 자살행동과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자살행동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학생 시기에서 학대 경험은 부정 정서, 자살행동과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부정 정서는 자살행동과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고, 자살행동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고등학생 시기에서 학대 경험은 부정 정서, 자살행동과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지만,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정서는 자살행동과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고, 자살행동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이러한 결과는 측정변인 간에 대부분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상관관계분석 결과

변인		학대 경험	부정 정서	자살행동	자아존중감
초등학생 (N=458)	학대 경험	1			
	부정정서	.345**	1		
	자살행동	.077	.345**	1	
	자아존중감	-.252**	-.495**	-.174**	1
중학생 (N=391)	학대 경험	1			
	부정정서	.331**	1		
	자살행동	.248**	.346**	1	
	자아존중감	-.234**	-.358**	-.210**	1

변인		학대 경험	부정 정서	자살행동	자아존중감
고등학생 (N=325)	학대 경험	1			
	부정정서	.278**	1		
	자살행동	.219**	.305**	1	
	자아존중감	-.110	-.426**	-.206**	1

**p<.01, *p<.05(양쪽)

2.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기의 학대 경험과 청소년기의 자살행동 간에 부정 정서의 매개효과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기의 학대 경험과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부정 정서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아동기의 학대 경험을 독립변수, 부정 정서를 매개변수,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Process Macro(Model 4)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Process Macro는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토대로 초등학생 시기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기의 학대 경험→부정 정서→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의 경로에서 부정 정서의 하한값은 .045, 상한값은 .210으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학생 시기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기의 학대 경험→부정 정서→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의 경로에서 부정 정서의 하한값은 .029, 상한값은 .179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등학생 시기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기의 학대 경험→부정 정서→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의 경로에서 부정 정서의 하한값은 .030, 상한값은 .128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학교급별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면, 아동기의 학대 경험과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부정 정서의 매개효과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시기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부정 정서의 매개효과 결과

구분	경로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초등학생 (N=458)	아동기의 학대 경험 → 부정 정서 → 청소년기의 자살행동	.125	.043	.045	.210
중학생 (N=391)	아동기의 학대 경험 → 부정 정서 → 청소년기의 자살행동	.098	.039	.029	.179
고등학생 (N=325)	아동기의 학대 경험 → 부정 정서 → 청소년기의 자살행동	.074	.025	.030	.128

3.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기의 학대 경험과 부정 정서, 청소년기의 자살행동 간에 자아존중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기의 학대 경험과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Model 14)로 매개된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초등학생 시기 매개된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의 매개된 조절효과의 크기는 -.242로 나타났고, 95% 신뢰구간의 하한값이 -.553, 상한값이 -.027로 0의 값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매개된 조절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중학생 시기 매개된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의 매개된 조절효과의 크기는 -.341로 나타났고, 95% 신뢰구간의 하한값이 -.763, 상한값이 .039로 0의 값이 포함되어 매개된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고등학생 시기 매개된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의 매개된 조절효과의 크기는 -.377로 나타났고, 95% 신뢰구간의 하한값이 -.773, 상한값이 -.097로 0의 값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매개된 조절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시기는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동기의 학대 경험이 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져서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학생 시기는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기의 학대 경험이 높을수록 부정 정서의 수준을 높여서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자아존중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결과

구분	경로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초등학생 (N=458)	아동기의 학대 경험 → 부정 정서 → 청소년기의 자살행동	-.242	.135	-.553	-.027
중학생 (N=391)	아동기의 학대 경험 → 부정 정서 → 청소년기의 자살행동	-.341	.224	-.763	.039
고등학생 (N=325)	아동기의 학대 경험 → 부정 정서 → 청소년기의 자살행동	-.377	.175	-.773	-.097

Ⅴ. 논의

본 연구는 아동기의 학대 경험이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 정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발달단계에 맞추어 초 · 중 · 고등학생 시기를 비교 ·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연구 문제로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기의 학대 경험과 청소

년기의 자살행동 간에 부정 정서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와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기의 학대 경험과 부정 정서, 청소년기의 자살행동 간에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인가?’ 를 설정하고 순서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문제 1인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기의 학대 경험과 청소년기의 자살행동 간에 부정 정서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Model 4)를 시행한 결과, 아동기의 학대 경험과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부정 정서의 매개효과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시기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발단단계와 상관없이 양육자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으로 인해서 자녀가 타인을 대할 때 정서 조절 능력이 감소하여 청소년기의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 손영미(2016)의 연구,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로 인해서 자녀가 부정 정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 행동을 하게 한다고 한 권형용(2013)의 연구와도 어느 정도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아동학대로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부정 정서로 사회적응이 어렵다고 확인한 연구(노경선 외, 2002; 윤진아, 2010), 부모의 아동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자녀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낌으로 자신이 필요로 할 때 보호받을 수 없다고 느낄 때 자살생각을 한다고 확인한 연구(유지연 · 황혜정, 2017) 등이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문제 2인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기의 학대 경험과 부정 정서, 청소년기의 자살행동 간에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인가’ 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Model 14)를 시행한 결과, 아동기의 학대 경험과 부정 정서,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초등학생, 고등학생 시기에서는 매개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지만, 중학생 시기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연구(장용환 · 송지혜, 2011; 전혜숙 · 전종설, 2020)와 자아존중감이 아동기 학대경험에 의해 내재화된 부정 정서를 낮추어 자살사고나 행동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구본용 · 김지은, 2021)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정 정서와 같은 심리 · 정서 요인이 부적응적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조절한다는 연구(김종임 외, 2008; 이선희 · 전종설, 2012; 최윤정, 2012)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중학생 시기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결과는,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초등학교와는 다른 학교 환경에 적응해가야 하고, 신체적으로나 심리 · 정서적으로 아동기의 특성에서 탈피하는 중요한 시기로, 청년기의 특성을 가지도록 자신에게 적응해야 한다는 박미정(2017)의 결과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긍정적인 자아상의 확립을 통해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높이고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김석우 · 한홍련, 2005). 이는 초등학생이 졸업하여 중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 수업 시간에 따라 자신을 적응시키고, 초등학교에서보다 많은 규칙과 통제에 적응해야 하며 버텨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학생 시기의 발달과정상 특징으로 인해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 시기에 자아존중감은 급격히 변화할 수 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일수록 실패 경험에 쉽게 압도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민감하게 수용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실패 상황에서 더 높은 문제에 대처를 잘하는 것(McFarlin and Blascovich, 1981)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학생 시기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의 주요 결과가 함의하고 있는 실천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학대 경험이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 정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로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아동학대와 부정 정서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여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살행동 원인의 하나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아동기 부모 학대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기의 부정 정서와 관계되어 자신을 향한 공격성으로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로 이어지지는 자살행동을 유지하게 되지만, 이를 자아존중감이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효과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둔다.

둘째, 발달단계에 맞추어 초 · 중 · 고등학생 시기를 비교 · 분석한 결과로 초등학생, 고등학생 시기에 자아존중감의 매개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중학생 시기엔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자아존중감은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친밀한 관계로 인한 영향이 가장 높은 편이지만. 인간의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게되며 그러한 경험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곽금주, 2008). 이렇게 향상된 자아존중감은 부정 정서를 감소시켜 청소년기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부모의 아동학대 경험으로 갖게 된 부적응 문제를 극복하여 새로운 관계에서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해 부적응적인 행동을 완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로부터 받은 아동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거나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대인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응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 심리 자원향상 프로그램 및 상담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 감정조절이나 분노 조절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울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도 필요하며 다양한 접근을 통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민철 · 조현주 · 이종선, 2013,「우울, 불안, 수치심, 자살사고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상담 및 심리치료』, 25(4): 873-896.

강현아 · 노충래 · 전종설 · 정익중, 2012,「가정 외 보호 청소년의 부정적 사건 경험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요인의 조절효과」,『청소년학연구』, 19(3): 193-222.

강희양 · 양경화, 2013,「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분석: 우울과 자기개념을 중심으로」,『상담학연구』, 14(1): 539-554.

곽금주, 2008,「한국의 왕따와 예방프로그램」,『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255-272.

구본용 · 김지은, 2021,「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 우울 및 불안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된 조절효과」,『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1): 823-834.

구본용 · 백승아, 2019,「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분노표현방식과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된 조절효과」,『상담학연구』, 20(2): 281-301.

권형용, 2013,「청소년 동반자의 상담사례를 통한 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질적 분석」,『인문학논총』, 33: 151-181.

김갑숙 · 전영숙, 2009,「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자아분화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한국가족복지학』, 14(4): 79-94.

김광혁, 2009,「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사회과학논총』, 24(2): 27-46.

김나예, 2012,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대경험 수준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아동의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미예 · 김정미, 2013,「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건강요인」,『청소년학연구』, 20(12): 267-293.

김보영, 2008,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메타 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보영 · 이정숙, 2009,「청소년 자살생각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대한간호학회지』, 39(5): 651-661.

김석우 · 한홍련, 2005,「중학생의 성교육 인식조사 및 성별에 따른 요구차이 분석」,『교육과학연구』, 36(1): 125-141.

김성희, 2018, 초기청소년의 자녀학대 피해경험과 문제행동의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희 · 김희숙, 2012,「중학생의 자살생각과 영향요인」,『2012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73-273.

김양희, 1995,「가출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한 · 조아미 · 이승하, 2013,『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 과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은경 · 이정숙, 2009,「아동의 학대경험이 정서와 인지적 편향을 매개로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1-18.

김재엽 · 최지현, 2005,「여대생의 아동학대경험이 정신건강 및 사회생활에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가족복지학』, 10(2): 27-47.

김재철 · 이경숙 · 성경주, 2012,「부모학대가 청소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교육연구』, 20: 119-139.

김종은 · 이윤주, 2013,「중학생의 비합리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가 분노표현양식에 미치는 영향」,『상담학연구』, 14(3): 1551-1567.

김종임 · 윤혜선 · 한선옥, 2008,「군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이 전 · 의경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자아존중감,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기본간호학회지』, 15(3): 387-394.

김좌겸 · 장석진, 2019,「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우울 간의 관계 :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 703-721.

김지수, 2011,「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 요인」,『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12): 261-268.

김지영 · 이경희, 2015,「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에 의해 조절된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 분석」,『대한간호학회지』, 45(5): 752-760.

김창곤, 2006,「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환경적 변인」,『청소년복지연구』, 8(1): 91-107.

김혜성, 2009,「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자살성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 25(1): 191-217.

노경선 · 허묘연 · 홍현주, 2002,「청소년기 애착 유형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신경정신의학』, 42(1): 116-123.

문동규 · 김영희, 2011,「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유발변인의 메타회귀분석」,『한국상담학회』, 12(3): 945-964.

박경진, 2005,「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한국심리학회지』, 2(2): 147-167.

박미정, 2017,「가정과 수업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9(3): 15-32.

박병금 · 노필순, 2007,「우울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변인 : 우울청소년과 비우울청소년의 집단비교를 중심으로」,『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168-193.

박재연, 2009,「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구조적 관계 검증: 보호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청소년학연구』, 16(10): 249-272.

박재연, 2010,「청소년의 자살위기와 레질리언스」.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현선, 1998,「청소년 문제 :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Resilience) 발달메커니즘」,『청소년학연구』, 5(3): 147-165.

배주미, 2000,「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18개월 추적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2021,『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서수균 · 권석만, 2005,「비합리적 신념, 자동적 사고 및 분노의 관계」,『한국임상심리학회』, 24(2): 327-340.

서희웅, 2020,「학교폭력 가해, 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공격성과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영미, 2016,「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지숙, 2020,「유년기 무효화 환경과 고통 감내력 부족이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 : 자기표현의 매개된 조절효과」,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지숙 · 구본용, 2020,「유년기 무효화 환경과 고통 감내력 부족이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 자기표현의 매개된 조절효과」,『청소년학연구』, 27(11): 229-253.

신민섭 · 박광배 · 오경자, 1991,「우울증과 충동성이 청소년들의 자살 행위에 미치는 영향」,『한국심리학회지』, 10(1): 286-297.

신복기 · 이성진, 2012,「청소년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우울불안, 자살 간의 관계 : 가정위탁, 양육시설, 쉼터,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한국민족문화』, 44: 281-318.

심희옥, 1998,「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부정적 생활사건,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원과 부적응에 관한 종단연구」,『아동학회지』, 19(2): 35-47.

심미영 · 김교헌, 2013,「한국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313-325.

안형숙, 2014,「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1): 185-203.

오경자 · 이혜련 · 홍강의 · 하은혜, 1998,「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중앙적성연구소』.

오승환, 2009,「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 -우울 · 자아존중감 ·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분석」,『학교사회복지』, 16: 53-73.

오승환 · 이창한, 2010,「청소년의 자살충동 결정요인 분석」,『한국범죄심리연구』, 6(2): 147-170.

오혜진 · 최희철, 2018,「비합리적 신념, 자기자비, 우울의 단기 종단적 상호관계」,『상담학연구』, 19(1): 23-39.

유재순 · 손정우 · 남민선, 2008,「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지역사회간호학회』, 19(3): 419-430.

유지연 · 황혜정, 2017,「부모의 양육방식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 · 정서발달 특성 : 중학생 3학년의 자아인식, 정서문제, 또래애착을 중심으로」,『미래청소년학회』, 14(1): 119-144.

윤진아, 2010,「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기 또래애착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혜미, 1997,「아동의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아동의 부모자녀관계 지각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한국아동복지학』, 5: 95-120.

이선희 · 전종설, 2012,「남 · 녀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논총』, 28: 173-202.

이성희 · 박경애, 2021,「가정 내 학대경험이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우울 · 불안과 인터넷 중독의 순차적 매개효과」,『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 47-72.

이재연 · 홍강의 · 조흥식 · 이양희 · 안동현 · 곽영숙 · 한지숙, 2000,「한국의 아동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아동권리연구』, 4(2): 97-112.

이채남, 2006,「중학생의 아동학대경험이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용환 · 송지혜, 2011,「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청소년 자아존중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정책과학연구』, 20(2): 80-104.

장현아, 2008,「학대아동에 대한 상담 모델의 개관」,『청소년상담연구』, 16(2): 1-15.

전혜숙 · 전종설, 2020,「방임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누적위험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학교사회복지』, 51: 49-78.

정익중, 2008,「아동학대 경험이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아동학회지』, 29(4): 79-95.

정지은 · 김민태, 2012,『아이의 자존감』, 지식채널.

조미숙, 2003,「가정폭력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7(2): 75-88.

최연희 · 장정남, 2014,「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관계」,『한국보건간호학회지』, 28(2): 285-297.

최원석 · 강순화 · 백승아, 2020,「중학생의 우울과 불안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 위축과 자아존중감의 매개된 조절효과」,『청소년문화포럼』, 63: 86-108.

최윤정, 2012,「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대학생 자살생각에 미치는 과정 분석: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청소년복지연구』, 14(2): 307-333.

최은영 · 안현의, 2011,「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한국여성심리학회』, 11: 55-75.

통계청, 2021,『2020년 청소년 통계』, 통계청.

홍나미, 2011,「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학대와 또래 괴롭힘의 영향에서 대인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의 매개효과」,『학교사회복지학』, 64(1): 151-175.

홍나미 · 정영순, 2012,「청소년 자살생각 영향요인 분석」,『한국사회복지학』, 4: 449-473.

홍명숙, 2017,「청소년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정책개발연구』, 17(1): 63-98.

홍세희 · 정송 · 노언경, 2016,「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위험요인에 대한 메타분석」,『청소년학연구』, 23(5): 153-179.

홍영수 · 전선영, 2005,「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 125-149.

황은수 · 성영혜, 2006,「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인식정서의 매개효과」,『한국놀이치료학회지』, 9(2): 73-89.

Afifi, T. O., Enns, M. W., Cox, B. J., Asmundson, G. J. G., Stein, M. B., and Sareen, J., 2008,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s of psychiatric disorders and suicide ideation and attempts associated with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8(5): 946-952.

Baldry, A. C., and Winkel, F. W., 2003, "Direct and vicarious victimization at school and at home as risk factors for suicidal cognition among Itali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6(6): 703-716.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1): 90-113.

Besser, A., and Neria, Y., 2009, "PTSD symptoms, satisfaction with life, and prejudicial attitudes toward the adversary among Israeli civilians exposed to ongoing missile attack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2(4): 268-275.

Berenson A. B., Wiemann C.M., and McCombs S., 2001, "Exposure to Violence and Associated Health-risk Behaviors among Adolescent Girls", *Archives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55(11): 238-1242.

Brezo, J., Paris, J., Vitaro, F., Hebert, M., Tremblay, R. E., and Turecki, G., 2008, "Predicting suicide attempts in young adults with histories of childhood abus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3(2): 134-139.

Browne, A., and Finkelhor, D., 1986,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 review of the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99(1): 66-77.

Cicchetti, D., and Rogosch, F. A., 1997, "The role of self-organization in the promotion of resilience in maltreated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4): 797-815.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s.

Crittenden, P. M., and Ainsworth, M. D. S., 1989, "Child maltreatment and attachment theory", In D.

Cicchetti and V. Carlson(Eds.),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32-463.

da Silva Ferreira, G. C., Crippa, J. A. S., and de Lima Osório, F., 2014, "Facial emotion processing and recognit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Frontiers in Psychology*, 5: Article 1460.

Deffenbacher, J. L., and McKay, M., 2000, *Overcoming situational and general anger,* Oakland: New Harbinger.

Dervic, K., Oquendo M. A., Grunebaum, M. F., Ellis, S., Burke, A. K., and Mann, J. J., 2004, "Religious affiliation and suicide attempt",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1: 2303-2308.

Dumas, J. E., and Nilsen, W. J., 2003, *Abnorm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Boston: Allyn & Bacon.

Eskin, M., Ertekin, K., Dereboy, C., and Demirkiran, F., 2007, "Risk factors for and protective factors against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in Turkey", *Crisis*, 28(3): 131-139.

Ethier, L., Lemelin, J. P., and Lacharite, C., 2004,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chronic maltreatment on children's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Child Abuse and Neglect*, 28(12): 1265-1278.

Evans, E., Hawton, K., and Rodham, K., 2004,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phenomena in adolescents : A systematic review of population based studi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 957-979.

Groholt, B., Ekeberg, O., Wichstrom, L., and Haldorsen, T., 2005, "Suicidal and nonsuicidal adolescents: Different factors contribute to self-esteem",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5(5): 525-535.

Hammen, C., Shih, J. H., and Brennan, P. A., 2004,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epression: test of an interpersonal stress model in a community samp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3): 511.

Harrington, R., Fudge, H., Rutter, M., Pickles, A., and Hill, J., 1990, "Adult outcome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I. Psychiatric statu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7(5): 465-473.

Herrenkohl, T. I., and Herrenkohl, R. C., 2007, "Examining the overlap and prediction of multiple forms of child maltreatment, stressors, and socioeconomic status: A longitudinal analysis of youth outcom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2(7): 553-562.

Johnson, J. G., Cohen, P., Smailes, E. M., Kasen, S., and Brook, J. S., 2002, "Television viewing and aggressive behavior during adolescence and adulthood", *Science*, 295: 2468-2471.

Johnson, J., Wood, A. M., Gooding, P., Taylor, P. J., and Tarrier, N., 2011, "Resilience to suicidality: The buffering hypothe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4): 563-591.

Joiner, T. E., Sachs-Ericsson, N. J., Wingate, L. R., Brown, J. S., Anestis, M. D., and Selby, E. A., 2007, "Childhood physical and sexualabuse an dlifetime number of suicide attempts: A persistent and theoretically important relationship",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 539-547.

Lavoie, K. L., Miller, S. B., Conway, M., and Fleet, R. P., 2001, "Anger, negative emotions, and cardiovascular reactivity during interpersonal conflict in wome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1(3): 503-512.

Lee, V., and Hoaken, P. N. S., 2007, "Cognition, emotion, and neurobiological development: Mediating the relation between maltreatment and aggression", *Child Maltreatment*, 12(3): 281-298.

Lynch, M., and Cicchetti, D., 1998, "An ecological-transactional analysis of children and contexts: The longitudinal interplay among child maltreatment, community violence, and children' symptomat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2): 235-257.

Marshall, B. D. L., Galea, S., Wood, E., and Kerr, T., 2013,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types of childhood trauma and suicidal behavior among substance users: A cohort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3(9): 69-75.

McFarlin. D. B., and Blascovich, J., 1981, "Effects of self-esteem and performance feedback on future affective preferences and cognitive expec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3): 521-531.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ills, C., 2004, *Problems at home, problems at school: The effects of maltreatment in the home on children' s functioning at school : An overview of recent research.* London: NSPCC London

Mussen, P. H., Conger, J. J., Kagan, J., and Huston, A. C., 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6th. Ed.). New York: Harper & Row.

Reynolds, W. M., 1988, *Suicidal s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Schimel, J., Landau, M., and Hayes, J., 2008, "Self-esteem: A human solution to the problem of death",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3): 1218-1234.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and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Shields, A. M., Cicchetti, D., and Ryan, R. M.,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and behavioral self 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among maltreated school-age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57-75.

Shonk, S. M., and Cicchetti, D., 2001, "Maltreatment, competency deficits, and risk for academic and behavioral mal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7(1): 3-17.

Stirling, J., Amaya-Jackson, L., and Amaya-Jackson, L., 2008, "Understanding the behavioral and emotional consequences of child abuse", *Pediatrics*, 122(3): 667-673.

Thornberry, T., Ireland, T., and Smith, C., 2001, "The importance of timing: The varying impact of childhood and adolescent maltreatment on multiple problem outcom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4): 957-979.

Uebelacker, L. A., Weisberg, R., Millman, M., Yen, S., and Keller, M., 2013, *Prospective study of risk factors for suicidal behavior in individuals with anxiety disord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arga, S., and Krueger, J., 2013, "Background emotions, proximity and distributed emotion regulation", *Review of Philosophy and Psychology*, 4(2): 271-292.

Vranceanu, A.-M., Hobfoll, S. E., and Johnson, R. J., 2007, "Child multi-type maltreatment and associated depression and PTSD symptoms: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tress", *Child Abuse & Neglect*, 31(1): 71-84.

The Effects of Childhood Abuse Experience o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Mediated Moderating Effects of Negative Emotion and Self-Esteem

Kim, Pyomin
(JEI University)
Choi, Wonsuk
(JEI University)

Subject Social Science, Social Practice

Key words Childhood Abuse Experiences,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Negative Emotions, Self-esteem

Summary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period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al stage in the effect of abuse experience in childhood on suicidal behavior in adolescence. The data of this study are the data of the 10th (2015), 13th (2018), and 16th (2021) child supplementary surveys of the Korea Welfare Panel. A total of 1,138 subjects (10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438 people, 13th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383 people, 16th grade high school students: 317 people) were used for analysis. Research model analysis was analyzed using PROCESS macro.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experience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according to developmental stag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mediating effect in all of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experiences, negative emotions, and suicidal behavior in adolescence according to developmental stage,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was confirmed in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but no self-esteem moderating effect was found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above study results were discuss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based on these results, an effective intervention plan for reducing suicidal behavior in adolescence was suggested.

접 수 일 : 2023년 1월 3일
심사완료일 : 2023년 1월 20일
게재확정일 : 2023년 1월 20일